

국내 최초 시공 시공 간편한 철망보온단열공법

진도 7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 국내 초유의 첨단 내진공법을 시도한 신문로 재개발지구의 세안빌딩은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지상 20층 지하 7층 연면적 1만2천4백40평 규모의 이 빌딩은 92년 2월 착공, 지난 5월 완공 되었다.

이 건물이 인텔리전트 빌딩 외에 설비공사업체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덕트를 비롯한 냉·온수관, 기계실 보온시공을 국내 최초로 철망공법에 의해 시공되었다는 점이다.

(주)한국단열이 국내에 보급 중인 철망보온단열재는 기존의 알미늄보온재 위에 부식방지의 아연도철망을 부착한 보온재로서 철망 끝을 결속시키기만 하면 시공이 끝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은 철망을 쉽게 묶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숙련도가 낮아도 쉽게 시공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효과가 뛰어나며 단열재가 배관에 밀착돼 결로를 방지할 수 있고 보수시 쉽게 해체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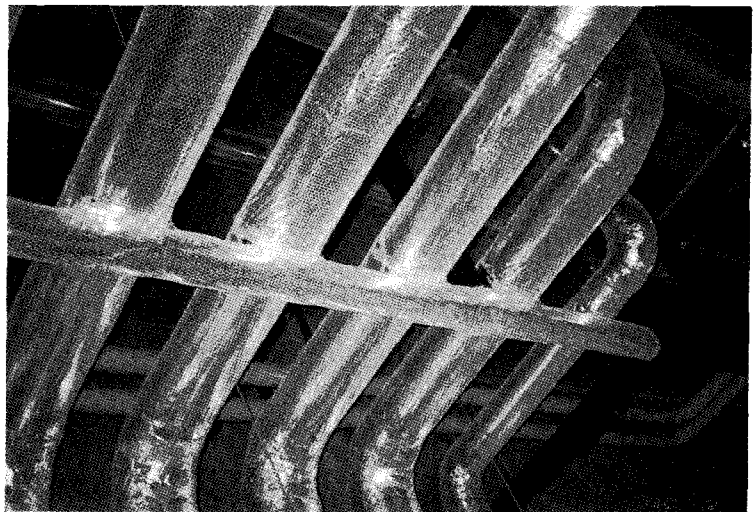
특히 협소한 장소에서도 쉽게 작업할 수 있고 엘보나 티 등 작업이 까다로운 배관 부속부분의 보온작업도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철망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시공후 변형될 가능성이 줄어 들고, 내화성 물질이므로 화재시 독성가스 배출의 위험도 없으며,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보호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방법은 유리솜 단열재

를 고정시키기 위해 테이프로 일일이 감아줘야 하는 작업의 난이성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협소한 장소에서의 시공이 힘들며 시공후 테이프가 풀려 하자발생의 요인이 되는 등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었다.

한국단열은 이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재료비가 기존 공법보다 10%정도 더 들지만 인건비 절감, 작업의 신속성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약 25%정도 공사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엘보, 티 등 작업이 까다로운 배관부속부분의 보온작업도 용이한 철망보온단열공법